

지장경에 나타난 社會福祉思想

조 광 환*

I. 序言

지장보살은 고통에 빠진 衆生들에게 特別히 서원이 지중하시다. 三惡途를 滅하고 지옥을 말리며 苦痛받는 모든 有情들로 하여금 一體淸淨願을 成就시키고 一體自在를 원만케 하여 正覺을 이루게 함이 필경 소원인 것이다.”

지장신앙의 기원은 그 信仰思想의 內容을 보더라도 印度에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²⁾ 그 지장신앙사상이 언제쯤 中國에 傳해졌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唐의 西明寺 道世가 지은 法苑珠林, 卷十七에는³⁾ 위나라의 天平年中(534-537)에 定州에 사는 祿敬德이 觀音像를 조성하여 예경한 공덕으로 꿈속에서 사문으로부터 救世觀音經을 일천번 독송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한 결과 나중에 斬決당할 액난에서 免脫할 수 있었던 연유로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고왕관음경’의 緣起를 말하면서 晉, 宋, 梁, 秦, 趙의 六祖時代로부터 隋·唐에 이르는 四百年間에 地藏은 觀音, 彌勒, 彌陀와 함께 널리 信仰 되었고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地藏信仰에 依하여 救濟되었는지 모를 정도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玄奘三藏法師는 求法하기 위하여 印度에 갔다가 17년만에 돌아와 唐 貞觀 19년(645) 을사 2월 6일에 勅命을 받들어 長安의 弘福寺에서 譯經事業을 시작한 이래 聖敎의 要文을 무릇 657부나 譯出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地藏信仰은 印度에서 대승불교가 出現하면서 衆生救濟를 目的으로 생겨난 신앙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장신앙의 국내 유포

1. 神昉의 地藏信仰

玄奘門下の 四高足の 一이라고 呼稱되었던 慈悲寺 神昉은 종래에는 出身國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唐僧이라고 보아져왔던 것이다. 그런데 道倫의 ‘瑜伽師地論記’에 그의 學說이 신라 昉師라는 이름으로

* (보각스님, 사회복지학과)

1) 光德 譯, 《지장경》, 서울 불광출판부, 1978, p.49.

2) 眞錫廣濟, 《지장보살연구》, p.14.

3) 법원주립, 권17. 《대정장경》, 53, 411. 下.

引用되어 있음이 확인됨으로 해서 신방이 신라승이었던 것은 극히 최근의 학문적 성과에 속하는 것이다.⁴⁾

如來께서 설하신 것과 보살이 전하는 것이 이미 전해오고, 또 전해가야 할 것 등을 한 곳에 收集하려고 하나 昉이 薄業한 탓으로 眞應하심을 만나지 못하고 라고 하였는데⁵⁾ 여기에서 나오는 昉은 玄奘의 譯場에서 筆受와 證義 등을 담당하는 법사로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법해사 사문 신방을 가리키는 것이다.

昉을 法海寺 沙門 신방이라고 결정한 것은 敬服할만한 견해이다. 이것은 아마도 《大乘大集地藏十輪經》卷第一의 末尾에서 볼 수 있는 ‘聖語藏本奧書’에 法海寺 神昉筆이라고 한 그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⁶⁾

神昉師가 新羅僧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많은 求法僧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들 구법승들에 의해서 신라에 지장보살신앙이 전래되었고 김지장, 승제, 진표율사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지장신앙이 꽃피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김지장의 지장신앙

세계적 불교성지인 중국의 구화산은 中國의 四大聖地의 하나인 지장신앙의 中心地이다. 그런데 구화산의 개창자가 新羅出身 僧侶 김지장(696-794)에 의해서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김지장은 俗名 교각(喬覺)으로 24세 때인 신라 성덕왕(聖德王) 18년(719) 바다를 건너 구화산에 이르러 75년 동안 고행하며 포교활동을 펼쳤다. 김지장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하신후 1500년만에 사바세계의 六度衆生을 제도하기 위해 신라왕가를 빌려 강탄하신 보살로 추앙을 한몸에 받는 민중불교의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 된다.

즉 無佛時代의 구세주 지장왕이 다름아닌 김지장이라는 것이다. 구화산은 김지장스님의 원력에 의해 한때는 사찰수 360개 수행승려 3,300명이 머무르며 수행하는 지장신앙의 성지가 되었다. 지금도 구화산에는 김지장스님이 세운 화성사를 비롯 그의 肉身사리를 그대로 모신 肉身寶殿을 비롯 80여개의 사찰이 있어 수 많은 수행자와 참배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 김지장스님은 신라의 차(金地茶)와 쌀(黃粒稻)의 종자를 가져와, 중국에서 재배하여 화성사 대중들의 양식으로 삼았다 한다.

3. 眞表律師의 地藏信仰

진표스님은 전북 김계군 都邢山村 大井里에서 出生. 俗性は 井氏, 父는 眞乃末, 母는 吉寶娘인데

4) 민영규, 「신라장소록-장편불전사서」, 《백성옥막사 송수기념 불교논문집》 p.347.

5) 東國大學校 刊 《고려대장경》, 제7권 662上.

6) 眞錫廣濟, 《地藏菩薩研究》, p.74.

어려서 활을 잘쏘아서 어느날 논둑에서 개구리를 잡아 버들가지에 꿰어 물에 담가두고 산에 가서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가 개구리 일은 잊어버렸다. 이듬해 봄에 또 사냥을 하다가 지난 해 일이 생각나서 가보니 개구리들은 버들가지에 꿰인 채 울고 있었다. 크게 놀라 뉘우치면서 “내가 어찌 먹기를 위하여 해가 넘도록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였으랴”하고 드디어 發心出家하여 戒法을 求하다가 12세에 金山寺 崇濟에게 가르침을 請하였다.

승제법사는 일찍이 唐에 들어가 善道에게 배우고 五戒를 오대산 문수보살에게 받고 돌아왔으므로 師가 道通의 要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仙溪山 不思議庵에 들어가 七日七夜 를 苦行으로 마음을 닦은 끝에 孝成王 四年(740년) 3월 15日 地藏菩薩의 現身을 맞아 淨戒를 받았다. 다시 靈山寺에 가서 道를 닦고 마침내 소원이던 미륵보살의 현신을 맞아 景德王 11년(752년)에 占察法二卷과 簡子 百八九箇를 받았다. 그 뒤에 금산사를 창건하여 미륵보살의 丈六像을 造成하고 다시 金剛山에 가서 鉢淵菴을 창건 占察法會를 열었다. 不思議庵에 돌아갔다가 故鄉의 父親을 뵈고 眞門大德房에 있었다. 景德王의 부름을 받아 宮中에서 보살계를 베풀고 粗七萬七千石, 絹五百緞, 黃金五十兩을 施主를 받아서 이것을 여러 사찰에 고루 나누어 주어 佛敎를 融興케 하였다. 弟子에 永深, 寶宗, 信芳, 體珍, 珍海, 眞善, 釋忠 등이 있어 法을 이었다. 金剛山 鉢淵寺 東쪽 큰바위 위에 올라가서 坐化하니 제자들이 그대로 두고 供養하다가 뼈가 흩어지게 됨에 비로소 흙을 덮고 돌을 세워 표하였다.⁷⁾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지장신앙이 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地藏經》의 衆生救濟思想과 現代의 社會福祉思想

「일체 지옥과 三惡途의 罪苦衆生을 모두 濟度하여 성불케 한 연후에 正覺을 이루오리다.」 지장보살님께서 청정연화목부처님전에서 세운 원력이다.⁸⁾ 近代의 意味의 社會福祉가 用語에서 의미하듯이 Welfare, 즉 평안히 잘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社會福祉란 人間의 幸福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政府나 民間이 諸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시설을 통해서 社會的 障礙(Social Dysfunction)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體系的, 組織의 努力이다.

社會事業은 個人, 國家, 集團, 地域社會에 對한 서비스 形態의 助力과 救護活動인 것이다.”⁹⁾

社會福祉는 個人의 欲求와 社會問題에 對한 Service이고, 平等과 保障을 意味하며, 기존 사회구조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Oxford사전에 의하면 福祉의 意味는 幸運, 幸福, 繁榮의 의미와 同一하다 했고 김영모 교수는 사회복지의 정의를 人間의 幸福을 추구하기 위한 社會的 努力이다라고 正義했다.¹⁰⁾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相異한데 全般적으로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등 전통적인 개념에

7) 《三國遺事—高僧傳》.

8) 《지장경 서문》.

9) The 13th International Social Work Conference, PreConference Report, Washington, September, 1966.

10) 金永漢, 《韓國人の 福祉意識》, 一湖閣, 서울, 1980. p.8.

서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정책 등 현대적인 개념으로 변화된다고 한다.¹¹⁾ 佛敎經典의 사회 복지사상 중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일반 세간의 社會福祉理念과 佛經의 福祉理念은 차별이 없으나 實踐방법에 있어서는 前者는 세속적 社會에 나타난 福祉의 活動이고 후자는 宗教的 慈悲에 의한 구제에 근원을 둔다.¹²⁾

佛敎의 社會福祉思想은 現實社會와의 대결 중에서 구성되어지면 안되고 불교의 福祉思想이 社會的으로 될 때 어느 형태로든지 불교의 이념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실현해야 한다.¹³⁾

이런 관점에서 지장경에 나타난 중생구제사상과 사회복지사상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1. 《地藏經》의 家族福祉

家族이란 個人들의 肉體的 福祉와 함께 가장 깊은 情緒的 欲求를 충족시키며 자녀들의 社會化를 위한 생활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계의 공동운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現代家族은 人의 構成과 조직의 성질상으로 불안과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¹⁴⁾

Clark W. Blackburn에 의하면 가족복지란 가족생활을 보호, 강화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행해지는 서비스활동을 말한다.¹⁵⁾ 가족복지란 가족관계의 붕괴 등으로 가족원 개개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가족의 복지가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 대해서 문제해결과 원조를 위한 사회적 조직활동이다.

“지장보살은 산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숙세에 재앙이 있고 수명이 짧은 보(報)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며 도둑질하는 자를 보면 빈궁하고 고초 받는 報를 말해주며 부모 뜻을 거스르는 자는 천재지변으로 죽는 것을 말해주며 끓는 물, 타는 불, 칼, 독기 같은 것으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것을 보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것을 말해주며 재물을 이치에 닿지 않게 헛되이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다 없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보를 말해주며 인색하고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소원이 어긋나는 보를 말해주며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놀라거나 미쳐서 목숨을 잃는 과보를 말해주며 前부모나 後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보면 내생에 바뀌어서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어서 이런 가지가지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¹⁶⁾

“염부중생 업감품”

불교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지장 보살님의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사람 뿐아니라 짐승, 소비형태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우주라 부르는 세계는 漢字로 “宇宙”, 집을 의미하고 한집에 사는 사람을 가족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며 가족복지의 관점인 것이다. 그러나 現代에 있어서 산업사회의 성립과정

11) 金永謙, 《현대사회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3, p.277.

12) 森永松信, 《佛敎社會 福祉學》, 成信書房, 昭和 39년 p.126.

13) 森永松信, 상계서 p.136.

14) 李效再, 《家族과 結婚》 서울, 진명출판사, 1975, p.295.

15) C.W.Blackburn, Family Social Work,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5, 1915, p.309.

16) 《지장경 염부중생 업감품》.

은 가족의 현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구조나 기능이 소가족화 핵가족화 기능을 띄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가족기능의 축소, 또 가족관계의 평등화를 들 수 있는바 이런 요소들은 가족의 약체화, 무력화 현상을 빚어내어 많은 가족들로 하여금 문제를 갖게끔 하였다.¹⁷⁾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복지 기능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가족의 구조적 결함은 가족의 문제 발생에 근원이 되고 있다.

外形的으로 그 代表的인 것이 缺損家族이다. “缺損家族이라 함은 夫婦中 一方이 死亡하거나 別居, 遺棄, 이혼 등의 原因에 依하여 결손된 가족으로서 모자가족, 부자가족, 자녀만의 가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¹⁸⁾ 現代家族은 특히 社會변화가 극심한 속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이 연발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¹⁹⁾

家長의 사망, 실업, 장애, 은퇴 등으로 인한 재정결핍은 결과적으로 정서적, 문화적 문제를 가져오므로 이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성격장애의 문제도 가족해체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²⁰⁾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있어 혹은 젓 먹을 때 혹은 3세 5세 또는 10세 이하에 부모를 잃거나 형제, 자매를 여의고서 이 사람이 장년이 된 뒤에 부모나 여러 권속을 사랑하고 그리워 하며 어느 취(趣)에 떨어져 있거나 천상에 있더라도 지장보살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내지 명호를 듣고 한번 우러러보고 한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건문이익품-²¹⁾

가족의 기능이 저해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ㄱ. 긴장상황

긴장은 가족의 경제적 상태나 가족원의 역할과 책임을 바꿀 수 있으며 긴장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가진 가족원의 능력이 손상당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상황은 현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의 침전물이다.

가정의 정상기능은 가족이동, 직장이동, 父의 失業, 死亡, 입대 등으로 파괴되며 가족내에서는 아기의 출생, 부모의 질병 등이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요인이 된다. “여러 有情들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미워하는 이와 만나게 되더라도 능히 지장보살마하살의 명호를 부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십륜경-²²⁾

ㄴ. 수입과 社會資源의 不足

이 문제가족은 사회적 기능의 능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가족원의 경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수입과 사회자원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욕구와 자원과의 불균형은 단순한 긴장 상황하의 가족과는 달리, 문제가 영구적인 성격을 띄우게 되므로 재정보조의 연결과 기타 봉사를 함께 필요

17) 장인형, 《사회복지개론》, 서울대출판부, 서울, p.208.

18) 崔在錫, 《현대가족 패턴과 문제점》 캐나다 유리티리안봉사회 간 pp. 25~26.

19) Reuben Hill, Families Under Stress, *Hand 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64, p.784.

20)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65, p.312.

21) 《지장경 전문이익품》.

22) 《십륜경》.

로 한다. 여러 유정들이 굶주림에 핍박당하더라도, 여러 유정들이 가지가지 의복과 보배장식, 의약과 침상과 방석과 그밖에 생활에 필요한 자구가 모자라더라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원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리라.”

- 십륜경 -²³⁾

㉔. 개인기능과 가족관계의 장애

이는 가족원 중 일인이상의 성격장애로 가족의 사회적 기능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하는데 이런 성격장애는 결혼 갈등이나 가정부조화, 일의 부적응 등으로 일어나며 심한 경우에는 개인이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 비행, 알콜중독, 유기 등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새로운 경제요구를 만들어 내게 되므로, 가정은 심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재정적인 원조도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문제(多問題) 가족은 사회적 기능의 여러부문이 장애를 갖고 있으므로 구성원은 흔히 심각한 정서장애와 발달장애를 지니고 있다. 이 가족의 태도나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원조확대가 필요하다.

가족은 사회의 최소단위이지만 사회집단 중 가장 중요한 집단이 가족이다. 건전한 가족은 곧 건전한 사회의 근본이 된다.

2. 地藏經의 老人福祉

“미래세 중에 여러 국왕과 바라문 등이 여러 늙고 병든 이와 출산하는 부녀 등을 보고 만약 일념 동안이라도 大慈悲心을 내어 의약, 음식, 와구 등을 보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여주면 이와 같은 복리는 가장 커서 가이 생각할 수 없느니라.” <교량보시 공덕품>²⁴⁾ 심각한 노인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에게 지장보살님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다.

노인에대한 개념을 한 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가나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과 관습은 물론 현재 및 미래에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歷年 齡(Chronological)을 표준으로 속칭 세는 나이가 그것이다.²⁵⁾ 그런데 歷年은 단지 물리적 기계적인 시간으로서 그것으로 정해지는 역연령은 인간의 생리적인 노화과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老化過程은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現在 大韓老人會, 大韓三樂會, 全國老人學校協議會 등이 규정한 입회자격은 60세부터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경로우대증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발급하고 있어서 確實한 노령선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²⁶⁾

Leonard Z Breen에 의하면 노인을 ① 생리적, 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면에서 個性(Personality)의 기능이 감소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가 과거에

23) 《십륜경》.

24) 《지장경 - 교량보시 공덕품》.

25) 김성순, 《노인복지론》, 이우출판사 1981, 서울, p.63.

26) 김성순, 상계서 p. 64.

속해있는 사람 등으로 定義하고 있다.²⁷⁾

그렇다면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을 분명하게 구분, 항목으로 제시하기는 또한 어렵다. 노인문제를 보는 觀點에 따라 原因 규명이나 대상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노인문제가 몇 가지의 뚜렷하고 결정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의 몇가지를 문제로 간추려 보기로 한다.

가. 인구 구성의 변화.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 위생상태의 발전으로 평균수명과 여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생률과 사망률은 同時에 줄어들어 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하고, 따라서 사회의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물론 노인인구의 증가 자체가 사회 문제가 될 수는 없으며 이는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패가 아니라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맞추어 전체사회구조에 혼란 주지 않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시설과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²⁸⁾

노인인구의 증가는 비생산활동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의존인구층의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를 웃도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증가 속도가 빠르다.²⁹⁾

나. 산업화

傳統的인 産業社會에서는 老人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가 안정 되어 老人問題가 없었다. 노인은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누렸으며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소외되거나 염려나 동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㉔ 노인이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중심의 가족주의 형태의 사회구조와, ㉕ 높은 사망률 때문에 노인인구가 적어 희소가치가 있었다는 두가지 요인이다.³⁰⁾

생산성이 낮은 농업사회에서는 경험과 노동으로 인해 노인은 존경을 받았으나 산업화는 노동력이 상품이 되었고 고도의 기술화는 노인의 노동력을 불필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노인문제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다. 가족제도의 변화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안전한 지위(Secure Position)를 차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同意하고 있다.³¹⁾

가족에 가치를 부여하는 社會에서는 개인의 지위와 신분이 가족관계에 의존하며 이런 사회에서는

27) Leonard Z. Breen, *Hand 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1950, pp. 147-148.

28) B.L Neugarten, *op. cit.*, p.168.

29) Scott, G. McNall, *Social Programs Today*, Little Brown Boston, 1975, p.83.

30) W. Petersen, The Three Main Age-groups, in *Problems of Modern Society*, ed. by Peter Waresley, Penguin, Harmondsworth, 1972, p.77.

31) Ben B Seligman, *The Poverty of Aging in Poverty: Views from the Left* ed. by Teremy Lerner and Lrving Howe, William Morrow, N.Y. 1970. p.109.

나이가 들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증가되며,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정서적 지지와 육체적 안정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노인이 유리하다는 것이다.³²⁾ 그러나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제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관료제적 조직체가 발달함에 따라 직업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지역적 이동이 증가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별거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³³⁾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경제적 의존정도가 줄어서 부모의 지위가 격하되었다.³⁴⁾

핵가족의 증가는 노인들이 자녀와 헤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단히 가족주의적이고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핵가족 생활에 익숙한 서구 노인들에 비하여 훨씬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분화로 인하여 노인 문제의 압력이 더욱 심하다.³⁵⁾

ㄷ.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거의 효도는 노인의 위치나 권력관계와는 별관계 없는 절대가치로서 철두철미하게 자식에게서 부모에게로만 향하는 일방적인 관계³⁶⁾였으며 이러한父子關係의 원리는 자기가 속한 모든 집단의 윗사람에게 연장 적용되어 왔다.³⁷⁾

그러나 현대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노인의 지위가 격하되었으며 노인들은 그 역할을 상실 당하는게 현실이다. 그러니 지장경의 말씀처럼 노인에 대한 공경심만이 올바른 사회질서와 노인문제 해결의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다.

3. 地藏經의 의료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이란 질병에 관련된 개인적 또는 社會的 問題들을 의료를 통해서 처리하여 최대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환자를 원조하는 과정이다”라고 Arther Z Fink는 定義하고 있다.³⁸⁾ 또한 日本 厚生省 발행의 보건소 의료사회사업 지침은 “의료사회사업이란 의료 및 보건기관 등의 의료팀의 一部門으로서 社會科學의 立場에서 의사의 진단을 도와주며 한편으로는 질병의 치료, 예방 養生의 장애 要素인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제문제를 만족하게 해결 또는 조정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과 집단을 원조하는 과정이다.”³⁹⁾

의료사회사업은 환자로 하여금 의료적 보호, 질병, 치료에 영향주는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빨리 正常的인 社會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이시여 만약 미래세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의식이 부족하여 혹 의식을 구하더라도

32) Thomas Sullivan et al, *Social Problems: Divergent Perspectives*, John Wiley N.Y. 1980, p.339.

33) T.Sullivan et al, *op. cit.*, p337.

34) *Loc. cit.*

35) 호斗日,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건대 학술지》, 제16집, 1973, p.318.

36) 崔在錫,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66.

37) 崔在錫,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p.128.

38) Arther Z.Fink, *The Field of Social Work*, 1949, p.359.

39) 日本厚生省, 《보건소에서의 의료사회사업의 업무지침》, 昭和32, p.1.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질병이 많거나, 혹은 흉하고 쇠한 것이 많아 집안이 불안하고 권속이 흩어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행사가 몰아닥쳐 몸을 괴롭히고 꿈속에도 놀라거나 무서운 일이 많거든, 이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심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염하면, 이 여러 가지 뜻과 같지 않는 일이 점점 소멸되어 안락을 얻고 의식이 풍족하여지는 내지 꿈속에서도 항상 안락하니라.”

—전문이익품—⁴⁰⁾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 질병에 대한 과거의 생각은 마음이 8할 신체가 2할이라고 했던 것처럼 의료 사회사업이나 재활의학에 있어서 정신적인 건강이야말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방법이 될 것이다.

“어떤 세계에 역병겁(疫病劫)이 일어나 모든有情들을 해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새벽에 여러 定的 힘으로써 역병겁을 없애어 저有情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느니라.”

—십륜경—⁴¹⁾

“장자시여 내가 이제 未來와 現在의 一體衆生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그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라. 장자여 未來나 現在의 모든 衆生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를 들었으면 그 사람의 죄의 있고 없고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해탈을 얻습니 다.”

—이익존망품—⁴²⁾

그러므로 의료사업을 施行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點이 있다.

첫째:인간으로서의 환자

인간은 건강한 사람이거나 환자이거나를 莫論하고 각기 독자적인 개성(Personality)를 소유하고 있다.

同一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病의 意味는 각기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의료적인 장면에서나 환자와의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유의점이 제기되므로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의료사업가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환자에게 있어서 병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해하고 환자를 독자적인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속의 일부로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심신상관적 접근

의료사회사업은 환자의 心身相關의 의미를 깊이 파악해야 한다. 흔히 질병이란 觀點에서 身體的 요소만을 강조하기 쉬우나 이에 못지 않게 심리적 요소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되고 있는 바이다. 즉 심신상관적 접근이란 질병에 있어서 身體的 요소는 물론 情緒的 요소를 함께 고찰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 미움, 공포, 안정감은 병의 악화, 장기화, 병으로부터의 회복 등에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의료 실무자는 신체적 정서적 요소를 다 함께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40) 《지장경 전문이익품》.

41) 《십륜경 서문》.

42) 《지장경 이익존망품》.

최근에는 정신신체의학(Psychosomatic)이 발달하여 精神과 身體間的 상관성에 기인하는 많은 종류의 질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가령 맹장염, 관절염, 천식, 암, 대장염, 당뇨병, 습진, 건초열(hay fever), 심장병, 편두통, 폐렴, 류머티스, 피부염, 위궤양 등은 정신치료법에 의해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⁴³⁾

훌륭한 의료란 이러한 兩者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사업가로서는 이 兩面에 關心을 가지되 本來的, 情緒的 面의 知識과 技術의 向上을 도모하면서 아울러 身體的 面에서는 의료팀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의료사회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병에 대한 환자의 반응

우리는 환자의 병에 대한 반응이 질병의 惡化나 退治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의사나 의료사회사업가가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더라도 환자 자신이 이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누구도 환자의 同意 없이는 치료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일이다. 병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환자는 남달리 질병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열등감에 잠겨 자신이 일상 사용하던 방어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더 병세는 악화된다.

어떤 환자는 병에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병중에 있으므로 관심을 더 얻게 되고 병이 없으면 평범하게 다루어진다는 단순한 생각에 기인한다. 또 다른 환자는 자신의 병을 부인하고자 하는데, 병을 부인하려는 의식은 완쾌토록 할 수 있는 힘을 소모하게 하고 환자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병에 대한 부인은 병의 완쾌를 위한 노력을 회피코자 하는 심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환자는 병의 好轉보다는 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더욱 만족을 얻으려고 하므로 건강회복이 늦어지게 된다. 바람직한 반응은 적극적으로 자기병을 인정하고 병의 치료를 위해, 바람직한 병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地藏經》의 障礙者福祉

障礙者란 社會生活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廢疾의 상태가 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 장애자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의 결과 적절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받은 개인을 말한다.”⁴⁴⁾

장애자복지의 대상자는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이 양자의 합병증인 심신장애자 및 重症心身障礙者들이다. 신체장애자의 범주 속에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음성기능장애, 또는 언어장애, 심장기능 장애, 호흡기능 장애 등이 내포되며 지체부자유와 언어장애를 함께 수반하는 중부

43) 兒寫美都子, 《의료사회 사업가론》, 1976, p.79.

44) ILO, Recommendation No.99, I Definitions I(6).

장애를 갖는 경우도 많다.

“남염부제의 여러 국왕이나 재상 대신이 큰 장자나 찰제리나 대바라문 등이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내지 곱추나 병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 등 이러한 가지가지 불구자들을 만나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하심하여 웃음을 머금으면서 친히 자기손으로 널리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되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 국왕 등이 얻는바 복리는 저 百恒河의 모래수효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이 국왕 등이 가장 빈천한 무리들과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발한 까닭이니 이 까닭에 얻는바 복리가 이와 같은 복보가 되느니라.”

—교량보시 공덕품—⁴⁵⁾

기계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많은 장애자를 만들고 있다. 환경파괴, 공해, 교통수단의 번잡, 약물 오·남용 등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국가나 사회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인정 할 일이다. 지장보살님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는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은 불교에서 장애자를 대하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교복지사상중 福田思想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받게 다 씨앗을 심어 많은 수확을 얻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福田은 佛, 法, 僧 삼보에 보시하였지만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나면서 八福田으로 확대되었고 중생이야말로, 불, 보살의 복전이라는 사상으로 발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푸는 방법도 의무적이나 강제에 의하지 않고 “항상 웃음을 머금고 친히 자기손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위로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인적 문제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물질의 풍요가 아닌 마음 가운데의 만족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장경에 나타난 사회복지 서비스정신이야말로 장애자를 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자도 일반사람들과 同一하다. 어떤 重症의 장애자라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의 人格의 存在이다. 장애는 어디까지나 二次的인 것이다. 모든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존중 應得 할 權利가 부여되어 있음이 모든 민주국가의 기본이념이다. 장애자를 보는 편견 때문에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동정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 그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⁴⁶⁾

둘째:장애자의 잠재능력(Potentiality)을 인정하는 確固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결코 신체장애가 인간에게 있어서 능력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장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경시할 뿐 아니라, 이들을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인 存在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人間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심미적 영역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는 개인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조를 제공할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장애자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나 사회 및 민간단체는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신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제반 교육이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⁴⁷⁾

45) 《지장경-교량보시 공덕품》.

46) 장인현, 《사회복지개론》 서울대출판부, 서울, 1981, p.203.

47) 장인현, 상세서, p.20.

셋째:사회는 장애자의 사회적 성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출생과 동시에 가정이라는 사회집단에 속하게 되며, 점차 유희집단, 이웃, 학교, 직업집단 등의 사회로 뻗어 나가며 성장 발전하게 된다. 현대 아동의 경우에는 생리적 발달 과정보다 오히려 사회화 과정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자들에게는 금지사항이 많으며 활동범위가 제한되어 성숙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장애자 가족들의 열등감이나 불만이 문제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자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재활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장애의 제약을 딛고 일어나 사회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성숙을 획득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地藏經》의 精神醫療社會事業

精神醫療 社會事業은 精神的 또는 情緒的 혼란을 지닌 환자를 도와주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정신의 학과의 직접적이며 책임있는 협력관계를 통해 행해지는 Social Case Work 활동의 한 형태이다.⁴⁸⁾ 정신의학이 발달하고 정신위생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전까지는 수세기에 걸쳐서 정신병에 그릇된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精神病疾患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미치광이나 귀신들린 자, 또는 징벌을 받은 자로 낙인 찍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왔었다. 악마나 귀신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시대에는 신에게 제사하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정신병자를 감금 보호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어떤 곳이면 그가 있는 곳에서 만약 어떤 有情이 악한 귀신에 잡혀 학질을 앓되, 혹은 날마다 앓고 혹은 하루 걸러 앓으며 혹은 3, 4일에 한번 앓고 혹은 미치광이가 되어 심신을 떨며 정신을 잃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게 되었더라도,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마하살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며 의우며 귀의하고 공경하면 병에서 벗어나 두려움 없고 심신이 편안해져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게 하느니라.”

-십륜경 -⁴⁹⁾

예전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병자로 낙인 찍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왔으나, 19세기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치료가 연구되고 시술된데 반해 지장보살은 비록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기도, 귀의하면 천상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설하시어 현대 의료사회사업에서 정신병치료의 모델을 제공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riedlander는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이 태동할 수밖에 없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⁵⁰⁾

첫째:精神病棟이나 정신병원에서 가료중인 환자들을 위한 개별적 Case Work(케이스 워크)나 사후보호의 필요성.

48) W.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2nd, ed, 1955. p.455.

49) <십륜경>.

50) W.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2nd ed, 1955. p.405.

둘째: 소년법원에 송치되었거나 또는 아동진료소나 사회기관에 치료나 적응을 위해 위탁된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케이스워크의 필요성.

셋째: 精神衛生診療所의 成人患者를 위한 케이스워크의 필요.

넷째: 軍病院이나 원호병원, 그밖의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정신신경증 환자에 대한 케이스워크나 그룹워크의 필요.

“어떤 곳이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약 어떤 有情이 貪慾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분한 마음과 원한과 간담과 질투와 교만과 나쁜 소견과 수면과 방일과 의심 등이 치성하여, 그의 심신이 어지럽고 괴로워 항상 안락하지 않더라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마하살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며 외우고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면 이들은 탐욕과 나쁜 것을 여의어 심신이 안락하며 보살은 그들에게 천상이나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십륜경⁵¹⁾

精神醫學 社會事業家(Psychiatric Social Worker)는 個人이 病院이나 시설에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관찰하여 평가를 하며 同時에 가족이나 주변에 대해서도 그들의 역할에 평가를 한다. 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밝혀진 의미를 査定한 후에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서비스 기관의 치료를 活用토록 도움을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O. Keefe는 精神醫學 社會事業家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신의학 사회사업가는 환자와 그 가족의 진단, 보호, 치료 및 재활의 모든 단계를 관계할 責任을 진다. 直接的 서비스 提供에 있어서 그는 患者에게 권장된 치료 Program의 수행을 위해 타전문직팀과 함께 協力하게 된다.

그의 치료 努力의 一次的인 초점은 환자와의 관계형성에 있다. 이를 위해서 Worker는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물과도 관계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환자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료적 대책을 받아들이게 하며, 치료를 방해하거나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하여 해결짓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전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발전 뿐 아니라 환자 자신의 자질을 활용하여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이와 같이 정신의학 사회사업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어서 가정이나 직장 지역 사회에서 또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의 向上된 성과를 거두도록 돕게 된다. 정신의학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확실히 의학적 치료를 주는 일은 아니다. 또한 심리적 검사를 하는 일도 아니다. 환자에 대한 신체적 보호를 행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회사업가는 환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족적, 또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러 有情들이 몸과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고 또한 온갖 병고에 시달릴때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마하살 명호를 염하면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고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십륜경⁵³⁾

51) 《십륜경》.

52) Daniel E.O Keefe, Psychiatric Social Work, *Social Work Year Book*. 1960, p.454.

53) 《십륜경》.

6. 《地藏經》의 矯正福社

矯正福社의 目的은 범법자의 更生, 범법자로부터 사회의 보호, 내지는 사회정의를 고취시킨다는⁵⁴⁾ 명백한 측면 이외에 또한 범법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하위에 존속시킨다는 이면도 내포되어 있다.⁵⁵⁾ 사실 교정복지는 징벌 (Panishment) 과 관용 (Toleration)이라는 모순된 복합적 개념을 지니고 있어서 교정이론, 교정정책 및 교정 프로그램을 수립함에 있어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사업은 아직도 전과학단계 (Pre-Science Phase)를 답습하고 있는⁵⁶⁾ 형편이다.

즉 현대의 교정복지가 수궁될만한 이론적 근거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교정자나 당국의 주관적 정책이념이나 확신, 또는 도덕적 가치관에 입각한 선택적 각도에서 교정복지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古代社會에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주로 직접 보복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古朝鮮의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8조금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하나의 습관법으로 8개조가 각종 범죄를 처벌했지만 그중 3개조만이 전한다.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② 남을 상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하고,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속죄하고자 하면 매인당 50만전(錢)을 내놓아야 했다.⁵⁷⁾ 古代 이스라엘 유대인의 律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에서 처럼 古代의 법들이 보복적인 性格을 가진데 반해 지장보살의 교정사상은 현대적이고 발달된 교정사상을 담고 있다.

“내가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이와 같은 역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저들의 마음을 調伏시켜 샅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중 열 가운데 하나 둘은 악한 습관에 빠져 있느니라.”

—분신집회품—⁵⁸⁾

古代의 형벌은 처벌과 격리에 目的을 두었으나 현대 교정사업의 당면과제는 그들을 교화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장경의 교정복지사상이야말로 현대의 어떤 교정사상보다도 발달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하였다면 혹 어떤 중생이 상주물을 도둑질하되 재물이 나, 곡물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내지 한 물건이라도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가진 자도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관중생업연품—⁵⁹⁾

54) R.K.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Glencoe, 111, 1957.

55) C.Schrag, *Theoretical Foundations for a Social Science of Correction* in *Hand Book of Criminology*, Rand McNally, Chicago, 1974, p.705.

56) M.Gold, *Crime and Delinquency: Control and Prevention*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 I Nasw, New York, 1977, p.218.

57) 《삼국유사- 고조선편》.

58) 《지장경-분신집회품》.

59) 《지장경-관중생업연품》.

“새존이시여 이 지장보살마하살이 대자비를 갖추사 罪苦衆生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만억의 세계에서 몸을 나투시고 계십니다.”

—관중생업연품—⁶⁰⁾

올바른 교정복지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각 나라마다 교정복지 모델은 차이가 있지만 共通的인 모델을 보면 ①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여, ② 집행유예 (Parole) ③ 보호관찰제도 (Probation) ④ 지역사회중심 교정제도 (Community Correction System)를 들 수가 있다.

㉠ 청소년비행에 대한 관여

청소년 비행에 관여함으로써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관여, 예방 및 교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 개인에 대한 관여.

비행의 요인이 선천적 성격의 특수성에 기인하든 환경의 소산이든간에 비행을 실제로 저지르는 사람은 개인 자신이기 때문에 비행 가능성을 가진 개인에게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 집단에 관한 관여.

청소년비행의 대부분이 불량집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시해야 하겠다. 학교 주변이나 어떤 특수지역의 가두에는 문제성을 지닌 집단들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집단지도를 통해 교정복지가 이룩되어야 하겠다.

㉣ 가정을 통한 관여

비행요인의 태반이 가정문제에 있으므로 가정을 통한 예방대책은 중요하다. 가정의 강화, 즉 부모교육과 공적부조 체제의 수립, 문제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비행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종교를 통한 관여.

청소년들이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멀리할 수 있다. 종교기관이나 단체들은 이들에게 건전한 교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내적욕구를 발산하고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

㉥ 집행유예 (Parole)

19세기에 사용된 집행유예의 개념은 비행을 더 계속하면 징벌을 준다는 조건하에 판결을 임시로 정지하는 것. 현대의 집행유예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치료과정’, ‘범법자를 준법자로 변화시키는 도움의 과정’, ‘권력당국과 함께 갖는 새로운 치료적 경험’, 또는 ‘왜곡되었거나 비현실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지닌 심리요법’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⁶¹⁾

㉦ 보호관찰 제도 (Probation)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대책이다.

60) 《지장경—관중생업연품》.

61) Training for Juvenile Probation Officers, Workshop Report Compile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1972.

보호관찰관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Social Case Worker)로서 가정 및 사회와의 밀접한 유대관계 위에서 無罰的인 방법으로 훈련과 지도, 보호와 후견을 하는 것이다.

㉔지역사회중심 교정제도 (Community Correction System)

Clifford R. Shaw에 의해 개발된 예방적 접근방법으로서 그 效用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특정한 Slum 지역사회내의 隣近感, 상호 책임감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전제로서 첫째, 지도력이 그 지역사회내에서 발굴되어야 하며 외부에서 개입해서는 안된다. 즉 토착적 지도력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둘째 전제는 비행의 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사회 자체가 그 자생적 지도자로서 내적 결함력의 개발을 통해서 자조할 수 있어야 하겠다.⁶²⁾

7. 《地藏經》과 社會政策

社會福祉政策이란 一般的으로 社會福祉프로그램이나 諸般 問題에 대한 意思決定에 活用되는 지침 (Guide line)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품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동안 모두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주어야 하느니라.”

—도리천궁 신통품—⁶³⁾

“제가 이제 미래세가 다하고 헤아릴 수 없는 劫 동안에 이 罪苦받는 衆生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케 하온 연후에 저 자신의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지장보살의 맹세—⁶⁴⁾

지장경의 일관된 사상은 바로 중생구제와 중생의 행복의 추구이다. 이런 바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根本思想이 되어야 할 것이다.

P. D. Kulkarni는 Oxford 사전을 인용하여 “政策이란 政府나 혹은 정당에 의해 채택되거나 추구되는 확립된 행동과정이다”라고 定義하고 있다.

H. Marshall 교수는 “社會政策이란 市民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나 수입을 제공해 주는 활동에 관한 정부의 시책이다.”라고 정의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⁶⁵⁾ 또한 그는 “특별히 프로그램의 중심적 핵심으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 복지서비스 및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이나 비행예방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⁶⁶⁾

“오늘날 전쟁과 온갖 질병과 굶주림과 난리겁을 쉬게하시며 바른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는 앞 못보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셔서 번뇌에 휘감겨서 날뛰는 저들을 모두다 적멸로 편안케 하시니 제가 이제

62) H.A. Bloch & F.T.Flynn, *Delinquency* 1956, . pp. 522-523.

63) 《지장경-도리천궁 신통품》.

64) 《지장경》.

65) T.H. Marshall, *Social Policy*, 1965, p.7.

66) *Ibid.*

모든 인연 다 버리고 세존님 발 아래 예경합니다.”

- 십륜경 -⁶⁷⁾

社會政策이 社會福祉서비스의 지침이라면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장보살의 중생구제의 서원이야말로 사회복지를 행하는 사람의 根本理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생을 위해 한 티끌 한 모래알, 한 물방울 만큼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善, 功德을 다만 능히 법계에 회향하면 이 사람의 공덕은 百千生 중에 으뜸가는 묘락을 얻느니라.”

- 교량보시공덕품 -⁶⁸⁾

“다만 자기 집안 권속에게만 회향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에만 회향하면 이와 같은 과보는 곧 삼생 동안 낙을 누리게 되나니 가히 하나를 버려 만가지 善報를 얻느니라.”

- 교량보시 공덕품 -⁶⁹⁾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어 염려를 마시옵소서 제가 이 형상이 다할 때까지 생각 생각 염부제 중생들을 응호하여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함께 안락을 얻도록 하겠습니니다.”

- 염라왕중 찬탄품 -⁷⁰⁾

사회복지의 대부분이 점차 국가의 제도나 政策으로서 確立되고 規定되어 가는 오늘날 社會福祉의 實踐도 國家制度의 틀을 무시하거나 國家의 福祉政策을 떠나서 전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은 不可分의 것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은 社會福祉 實踐過程의 效果的인 전개에 필요한 資源(人的, 物的, 財政的) 조달이나 그 효율적 배분 방법, 또는 組織에 관한 구체적인 檢討라 하겠다. 따라서 社會福祉政策에는 정책의 형성과 결정의 機制設定 뿐 아니라 社會福祉 實現을 위한 行政, 財政의 운영이나 政策效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社會福祉政策은 社會福祉의 目標, 즉 사회복지의 要求와 수요가 充足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達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회, 資源을 어떻게 確保, 調達하여 그것들을 요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社會福祉政策은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자원, 정보, 서비스 등을 요보호자에게 제공하여 그것이 그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함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나 신념이 社會政策인 것이다.

67) 《십륜경》.

68) 《지장경 - 교량보시 공덕품》.

69) 상계서.

70) 지장경, 염라왕중 찬탄품.

8. 《地藏經》의 自願奉仕

〈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서는 “自願奉仕者 Volunteer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혹은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公私의 여러 조직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서비스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하는 개인이다”라고 定義하고 있고⁷¹⁾ 또 일본의 〈사회복지사업사전〉에서는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 후에 반대급부-보수라든가 지위나 명예라든가의 교환조건-를 요구함이 없이 자의로 사회복지자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⁷²⁾

“어떤 곳이든 그가 있는 곳에서, 만약 어떤 有情들이 여러 독사나 독충에게 물리고 혹은 가지 가지 독약에 중독되었더라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마하살의 명호를 부르며 생각하고 외우고 귀의하며 공경하고 공양하면 이들 모든 괴로움과 해로움을 여의게 되며 보살은 그에 마땅한 바를 따라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십륜경—⁷³⁾

“중생들이 고통스런 수레를 타고 서로 서로 돌아가며 헤치더라도 지장보살 귀의하고 공경한자는 인욕과 자비심에 머물게 되리.”

—지장보살 십륜경—⁷⁴⁾

“중생들이 과거세의 악업 때문에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어디서나 괴롭고 위태로울 때 그 모두를 다함께 건져주리라.”⁷⁵⁾ 現代에 있어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慈惠心, 감상주의, 또는 값싼 영웅주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타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인간성을 회복하고 주장하며, 특히 커뮤니티 감정 (①우리들의식 ②역할의식 ③의존의식)⁷⁶⁾의 형성에 의하여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발성과 연대성을 갖는 활동이며, 책임감을 갖고 무보수로 서비스하는 “사랑의 복지활동”이라는 점에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 상호간의 책임, 상호간의 이해, 상호간의 존중, 상호간의 관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은 自願奉仕主義 (Voluntarism)와 민주주의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상적 기반 위에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인간복지목표에의 협력 또는 직접참여하는 개인을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시간과 물질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사회복지활동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복지를 위하여 인간으로서 당연

71)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ume 2, 1977, p.582.

72)塚本哲, 大家達雄社, 外 二人共編, 《新版 사회복지 사업사전》, シネハヴ 書房 1977, p.7.

73) 《십륜경》.

74) 《십륜경》.

75) 《십륜경》.

76) R.M. MacIver and C.H. Page. *Society: An Introductory Analysis*, Farrvard Rinehart, New York, 1949.

히 해야 할 일 즉,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자발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랑의 복지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은 무원칙하게 활동할 경우 사람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며 오해를 받기 쉽고 여러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자원봉사활동시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제1원칙: 활동의 원점을 기본적 인권의 養護에 둔다.⁷⁷⁾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올바른 이해가 자원봉사활동을 해나갈 때의 입장이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 권리를 기본적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권리는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등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다.⁷⁸⁾

자원봉사활동은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통해서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 교육권 등과 대응하여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는 처음에는 선의의 활동으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권의식을 몸에 익혀, 그것을 활동의 좌표축으로 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선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원칙: 활동에 있어서는 民主主義 精神, 방법을 尊重한다.⁷⁹⁾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주의사회라는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주권재민의 사회를 형성해가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주체적인 한사람 한사람의 시민이 존중됨과 同時에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에 따라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주주의 원리, 방법을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생활을 지키는 일과 연결되고 민주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가나 정부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민주주의의 적인 폭력을 부정하며 신뢰와 대화를 통한 공동체적 공감대와 평화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제3원칙: 활동에 있어서는 시민적 성격을 견지한다.⁸⁰⁾

자원봉사활동은 종교활동, 영리활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은 종교적인 선전의 장이 된다든지 특정정당의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원 봉사활동은 公共性과 社會性을 갖는 활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성이란 주체적인 개인이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 자치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라든가 특정한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원리에 따라 인간과 인간이 연대감을 갖고 비복지적인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다. 이 원칙은 평화나 복지적 과제의 해결과 변화를 향하여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자원봉사자로서 종교나 정당을 초월하고, 또는 국가나 민족이나 지위를 초월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연대적인 활동이며, 시민적 성격을 존중하는 활동인 것이다.

77) 大阪 ボランティア 協會, 培養社編, 《ボランティアフハソベシク》昭和 54년, p.34.

78) 尹謹植 外, 8인 《제오공화국헌법해설》, 탐출판사, 1980, pp.112-6.

79) 大阪 ボランティア 協會, 培養社編, 진게서 p.34.

80) 상계서, p.35.

IV. 結論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社會福祉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宗教에 依하지 않고는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 社會복지를 전공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의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한 여러가지 社會복지서비스를 베풀었으니 醫藥社會事業으로 東西大悲院, 惠民園, 행려자보호사업인 “院”의 사찰 등, 장학사업기관인 “庫”빈민구제와 물가조절기관 “寶”등의 사업을 실시했으나 이런 社會복지가 조선시대에 맥이 끊기고 말았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社會복지는 서구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동력의 발달은 산업혁명을 낳았고 대량 생산 시장경제의 발달은 많은 원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영농민은 도시근로자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빈부의 격차를 낳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인간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社會복지의 발달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렸고 많은 보장은 오히려 일하지 않고 살려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社會복지국가들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지장보살의 중생구제사상이야말로 社會복지의 궁극적인 실천덕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몸을 이루고져 하거든 마땅히 오랜동안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주어야 하느니라”

衆生供養이 諸佛供養이다. 부모에게 있어서 행복은 자식에 의해서인 것처럼 佛, 菩薩의 행복은 중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코 남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의 근원임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딜레마에 빠진 社會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야 한다.

일체중생이 성불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우리 모두의 서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불국정토-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1) 《지장경》
- 2) 《십륙경》
- 3) The 13th International Social Work Conference
- 4) 김영모, 《한국인의 복지인식》 일조각, 서울, 1980.
- 5) 김영모, 《현대사회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3
- 6) 森永松信, 《佛敎社會 福祉學》 成信書房, 昭和39년
- 7) C.W. Blackburn, Family Social Work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65
- 8) 장인협, 《사회복지개론》 서울대 출판부 서울.
- 9) 채재석, 《현대가족 패턴과 문제점》, 캐나다 유타테리안 봉사회
- 16) W. Petersen, The Three Main Age-Groups in *Problems of Modern Society* ed, by Peter Worsley, Penguin, Harmondsworth, 1972.

- 17) Ben B Seligman, *The Poverty of Aging in Poverty; Views From The Left* ed, by Teremy Larner and Lrving Howe, William Morrow, N.Y. 1970.
- 18) Thomas Sallivan et al, *Social Problems; Divergent Perspectiones*. John Wiley N.Y.
- 19) 현두일,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제16집 1973.
- 20)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66.
- 21) 최재석, 《한국인의 신체적 성격》 p. 128.
- 22) Arther E Fink, *The Field of Social Work*, 1949.
- 23) 日本厚生省, 《보전소에서의 의료사회산업의 업무지침》, 昭和 32.
- 24) 兒寫美都子 《의료신체사업가론》, 1976.
- 25) ILO, *Recommendation*, No. 99 I Definitions.
- 26) W.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2nd ed. 1955.
- 27) Daniel, E. O. Keefe *Psychiatric Social Work, Social Work Year Book*, 1960.
- 28) R.K.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Glencoe, 1957.
- 29) C. Schrag *Theoretical Foundations for a Social Science of Correction in Hand Book of Criminology*, Rand McNally, Chicago, 1974.
- 30) M.Gold, *Crime and Delinquency: Control and Prevention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 I. Nasw, New York, 1977.
- 31) 《삼국유사 고조선편》.
- 32) *Training for juvenile Probation Officers, Work Shop Report Compile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n 1972.
- 33) H.A. Bloch & F.T.Flynn, *Delinquency* 1956.
- 34) T.H Marshall, *Social Policy*, 1965.
- 35) *Encyclopedia of Social Work*, Volume, 2, 1977.
- 36) 塚本哲, 大塚達雄 外 二人共編, 《新版 사회복지산업사전》, ミネルヴ書房 1977
- 37) R.M.Maclver and C.H Page, *Society: An Introductory Analysis*, Farre and Rinehart, New York. 1949
- 38) 大阪 ボランティア協會, 皓養社 編, 《ボランティアソイブツク》 昭和 54년.
- 39) 尹謹植 外 8人 《제오공화국헌법해설》 탐출판사 1980.